

# 三千浦 勒島遺蹟 出土의 凹線文 彌生系土器에 대해서

沈 奉 謹\* · 中國 聰\*\*

##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考察  |
| 2. 資料의 觀察 | 4. 맺음말 |

## 1. 머리말

勒島는 우리나라 南海岸의 慶尙南道 泗川市에 位置하는 작은 섬이며 遺蹟은 섬의 동쪽과 서쪽 일대에 주로 分布하고 있다. 이 遺蹟은 終末期 無文土器가 많이 出土하는 遺蹟의 하나로서 日本 彌生系土器가 出土되어 考古學系에서 注目을 받고 있다).

東亞大學校 博物館에서는 지난 1983年 이 遺蹟의 性格 把握을 위해 地表調査를 實施한 바 있다. 當時 많은 土器片이 地表에서 採集되었는데 無文土器에 섞여서 彌生系土器도 少量이지만 함께 收拾되었다. 특히 함께 出土된 彌生系土器는 大部分 日本 北部九州地域에서 보이는 型式과 매우 恰似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는 北部九州地域 以外の 系統이라고 생각되는 凹線文土器 1점이 섞여 있어 重要性을 勘案해서 여기에 그 特徵을 紹介한 뒤 약간의 考察을 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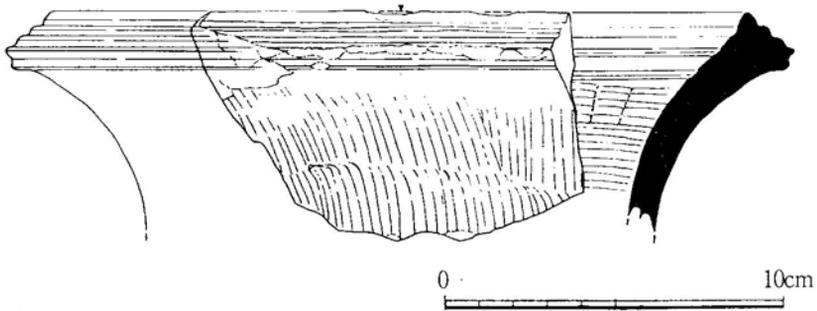
## 2. 資料의 觀察

여기에서 採集된 資料의 特徵을 紹介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第 1 圖·圖版 I·II)

\* 東亞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教授

\*\* (前)九州大學 考古學研究室 助手, (現) 福岡市 教育委員會 調査研究員

1) 釜山大學校博物館, 1989. 勒島住居址. 釜山大學校博物館選撰調査報告第13集, 釜山大學校博物館 그 외.



第 1 圖. 實測圖(1/2)

이 土器片은 壺의 口緣部에서 頸部에 이르는 사이에 해당하는 破片이다. 口徑은 23.4cm 정도로 推定되는데 圖面은 약 1/5 정도 殘存한 口緣部를 圖上復原한 것이다. 圖示한 것과 같이 口緣部는 둥글고 비틀어진 것은 아니다.

口緣端部 主要面에는 3條의 凹線이 시문되어 있다. 凹線의 斷面은 波板狀이다. 圖中の 最大徑部分은 약간 벌어져서 대부분 깨어져 있다. 그 直下에도 1條의 凹線이 둘러지고 銳利하게 突出된 부분은 그 上下에서 凹線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口緣部の 內面에도 약간 희미한 3條의 凹線이 施文되어 있다. 이 內面の 凹線을 자세히 관찰하면 斷面이 얇은 U字狀으로 보이지만 中央부분이 약간 볼록한 편이다.

內外面 모두 木理文으로 整面되어 있다. 木理文은 外面·內面 모두 3~4條/cm 정도이고, 外面이 조금 왼쪽으로 기울어진 縱方向의 木理文이며 內面은 橫方向이다. 內面の 木理文 調整에서 종종 보여지는 것 같이 곳곳에 停止하면서 橫方向으로 工具를 움직이고 있다. 內外面 모두 木理調整後 橫으로 물손질이 되어져 있고 各各의 木理文 上端은 지워져 있다. 이 橫으로 물손질은 凹線文의 施文과 同時에 이루어졌을 可能性이 있다. 內面下部는 木理調整後 물손질이 되어 있다.

器壁은 圖面の 範圍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얇아지고, 下端 가까운 두께는 9mm 정도이다. 아마 이 個體의 器壁은 보통 1.0cm 정도로 생각된다.

胎土는 1mm 정도의 金雲母가 보통으로 含有되어 있다. 또 1mm 정도의 白色粒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個中에는 약간 透明한 2.5mm 크기의 것이 보이기도 한다. 0.8mm 이하의 角閃石으로 보이는 光澤이 있는 黑色粒과 赤褐色粒이 보통 含有되

어 있다. 現段階에서 確實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南部地域과 北部九州地域에서 나타나는 土器의 胎土와는 다른 印象을 주고 있다.

色調는 外面이 明黃灰色(약간 黃色을 띤 밝은 灰色), 內面은 明灰黃色(灰色을 띤 밝은 黃色)이고 外面쪽이 조금 灰色이 강한 편이다. 말하자면 밝기가 灰色을 띠지만 灰色이 부족한 土器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南部地域 土器와 北部九州地域 土器와는 매우 다른 色調이다.

### 3. 考 察

위의 特徵 把握과정에서 우리는 이 土器가 形態와 調整技法, 色調와 胎土 등이 우리나라 南部地域에서 볼 수 있는 無文土器와는 전혀 다른 凹線文이 施文된 彌生系土器임을 알 수 있었다. 無文土器와 彌生土器와의 사이에는 土器製作에 있어서 態度와 姿勢, 筋肉運動 등에 관한 習慣이 틀린 것이 보인다<sup>2)</sup>. 이 遺物の 경우 全體의 形態·調整技法과 色調·胎土 그 외의 習慣에 있어서도 變用된 要素는 認定되지 않고 있으며 製作과정에서 無文土器 製作者가 關與하였다 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 意味에서는 오히려 彌生土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胎土分析을 行하지 않았기 때문에 斷定은 할 수 없지만 아마 日本에서 製作한 것이 搬入되었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그러나 이 遺物の 具體的인 製作時期와 製作地域에 대해서는 이 資料만으로는 斷定하기 어렵다. 특히 凹線文土器는 基本的으로 九州와 山口以外的 西日本에도 넓게 分布하고 있으므로 어느 地域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 時期的으로도 日本에서 이 土器가 出土되는 地域의 彌生時代 中期(第Ⅱ~第Ⅳ樣式)에 있어서 第Ⅱ·第Ⅲ樣式은 櫛描文이 多用된 時期인데 第Ⅲ樣式中에서도 新段階가 되어야만 凹線文이 出現하고 第Ⅳ樣式에서 가장 活發하게 使用된다. 말하자면, 中期後葉에서 中期末葉이 가장 盛行한 時期라고 할 수 있다. 後期の 第Ⅴ樣式이 되어도 凹線文은 使用되지만 점차 減少하는 傾向이다. 따라서 第Ⅳ樣式 또는 내려봐도 第Ⅴ樣式 初頭段階로 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仔細한 時期와 地域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論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새로운 資料 發見에 期待를 걸어본다.

또한 時期的인 問題에 있어서 靑島遺蹟에서 出土되는 이 外的 彌生系土器 또

2) 中國 聰, 1993. 「折衷土器의 製作者-韓國靑島遺蹟における 彌生土器と無文土器의 折衷と事例として-」 『史淵』 第130集.

는 彌生土器 類似的 土器는 北部九州系의 城ノ越式에서 須玖Ⅰ式古段階, 즉 彌生時代 中期初頭에서 中期前葉 古段階로 編年되는 것이 많은 편이다. 그런데 여기에 後續하는 須玖Ⅱ式土器(中期後葉~末)도 採集資料 中에는 存在하고 있으며, 個中에는 丹塗된 祭祀用이라고 생각하는 土器와 甕棺片도 包含되어 있다. 또 九州와 瀬戸內·近畿와의 사이에 並行關係는 從來의 것에서 약간의 修正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第Ⅳ樣式은 北部九州의 高三瀨式(後期初頭~前葉)이라기 보다는 須玖Ⅱ式에 並行한다고 보여진다<sup>3)</sup>. 따라서 이 資料는 이런 時期에 搬入되었을 可能性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須玖Ⅱ式土器가 搬入土器일 可能性이 豫想되고 있는 것은 이 土器가 우리나라 南部地域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흔하게 出土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勘案한 것이다. 慶尙南道 金海市 池內洞遺蹟 發見의 須玖Ⅱ式系의 袋狀口緣長頸壺는 殘存狀態가 良好한 것이다<sup>4)</sup>. 따라서 이 時期에도 海峽을 사이에 둔 交流가 活發하게 行해졌음이 豫想되고 있다.

注意할 것은 凹線文土器가 九州地方에서는 매우 客體의인 形態로서만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北部九州의 須玖式(須玖Ⅰ·Ⅱ式)土器는 瀬戸內·近畿의 櫛描文·凹線文系土器群(第Ⅲ·Ⅳ樣式)과는 排他性이 강한 것이다. 北部九州에는 凹線文土器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相對的으로 大分縣과 특히 宮崎縣·鹿兒島縣 등 東·南部九州地方에는 많은 편이다. 또 熊本縣 南部에도 後期初頭(第Ⅴ樣式初頭)가 되면 出現하고 있다. 결국 須玖式土器의 分布主體가 되는 北部九州를 둘러싸는 것처럼 東~南部九州에 流入되고 있는 것이다. 南九州에서는 在地의 土器製作者가 文樣만 模倣한 「折衷土器」도 存在하고 있어서 相對的인 排他性의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北部九州지역의 排他性이 높은 것과 南九州地域의 낮은 것이 靑島에서는 함께 出土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을 單純히 漂着 등에 의한 偶然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要因을 생각해 볼 것인가는 여기서 아직 判斷하기 어렵다.

## 4. 맺음말

靑島出土 1點의 凹線文土器 存在가 어떠한 人間行動의 結果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狀態로서는 判斷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南部地域에서 最近 彌生系土器

3) 中國 聰, 1993. 「樣式論 南部九州の彌生時代中期土器」, 『鹿兒島考古』 第27號.

4) 沈 奉 謙(藤山健二, 譯), 1984. 「金海池內洞甕棺墓」, 『古文化談叢』 第13集.

가 少量이지만 곳곳에서 繼續 出土하고 있고, 西日本 各地의 彌生時代 遺蹟에서도 少量이지만 無文土器와 灰青色軟質土器가 出土되고 있다. 앞으로 類列의 檢討를 期待함과 同時에 우리나라와 日本과의 相互 土器의 移動과 折衷方法에 대해서 패턴을 抽出해서 模型화를 行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小考는 그 始作이라는데 意味를 부여해 두는 것이다.



外面



內面

圖版 1. 內外面 狀態



口緣端部の凹線文



口緣部内面の凹線文

圖版 2. 口緣部 細部 狀態